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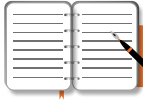
Story 01

김 * * 의공학과 2020년 졸

SK C&C Software Engineering 분야 합격스토리

- ▶ **합격기업** SK C&C
- ▶ **직무** Software Engineering
- ▶ **스펙** 학점 : 4.0
토익 : 760점 / OPIC: IM2
- ▶ **공모전/인턴** 대학장의발명대회(한국발명진흥회장상)
캠퍼스특허전략 유니버시아드(LG 디스플레이 사장상)
- ▶ **활동** 발명특허동아리, CVCA





대학생활 스토리

평소에 공학과 의학 분야에 관심이 많던 저는 단순히 공학적 지식을 통해 의학적인 문제들을 해결하고 싶다는 마음으로 '의공학과'에 진학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대학교 1학년 때 수강한 인체해부학, 임상의학이해 등의 과목들은 제가 생각한 공학과는 매우 달랐습니다. 그렇게 좋지 못한 성적을 받은 채로 군대에 다녀온 후 복학 전까지 진로의 방향을 확실하게 하고자 하였습니다. 그 당시, 인터넷 뉴스를 통해 삼성 시스템 LSI 사업부에서 심전도, 맥파, 체지방 센서가 탑재된 '바이오프로세서'를 개발해 헬스케어 기능을 스마트폰에도 탑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의공학이라는 분야가 모바일 디바이스를 통해 일상생활에 적용될 수 있다는 사실이 저에게 매우 큰 매력으로 다가왔고, 그 이후부터 모바일 디바이스에서 제공 가능한 헬스케어 솔루션 개발을 목표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저는 컴퓨터/소프트웨어 공학도가 아니었기 때문에, 전공수업만으로는 기초 프로그래밍 지식을 쌓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복학 후 관련된 전공수업 뿐만 아니라 타과의 프로그래밍 수업을 폭넓게 선택해 들으며 데이터베이스, 자료구조, 웹/모바일 프로그래밍 등의 컴퓨터 공학적인 지식을 쌓았습니다.

2학년 겨울방학이 되어서는 **관련 프로젝트를 진행해보고자 헬스케어 디바이스와 관련된 연구를 하는 교수님의 연구실에 들어가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지금 다시 생각해보면 이 결정이 제가 취업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turning-point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취업에 사용된 대부분의 스펙들이 연구실의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저절로 쌓아졌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대략 **1년 반 동안 실험실에서 모바일/웨어러블 디바이스에 적용되는 프로젝트를 주로 진행하며 학술대회에서 3번의 발표와 1번의 수상을 하고, 대한전기학회의 저널에 1건의 논문을 게재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논문을 작성하는데 있어서는 교수님과 연구실 선배님들의 도움을 많이 받았고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4학년이 되어서는 대학원 진학과 취업의 갈림길에서 정말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의공학과'의 특성 상 전공을 살려서 대기업/공기업에 취업을 하기 위해서는 대학원 진학이 거의 필수였기 때문입니다. 많은 고민 끝에 결국 대학원 진학이 아닌 바로 취업을하기로 결정하였고, 직무경험을 쌓기 위해 현장실습을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현장실습에 참여하는 기업 중에 제가 원하는 직무의 기업이 없어서 교수님께 상담을 요청하였고, 교수님의 도움으로 **삼성전자에서 spin-off한 헬스케어 스타트업 '웰트'에서 현장실습을** 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 과는 졸업을 위해서 졸업논문을 필수로 작성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대략 2년 동안 연구실에서 진행해온 프로젝트가 있었기에, 다른 학생들이 1년간 작성하는 졸업 논문을 1학기 안에 작성할 수 있었고, 그랬기에 4학년 여름방학부터 2학기까지 6개월간 현장실습을 할 수 있었습니다. **현장실습 중에는 웨어러블 벨트의 가속도 센서를 활용한 낙상감지 알고리즘을 개발과 스마트 벨트와 연동되는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는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2학기 현장실습을 진행하며 2019년 하반기에 처음으로 입사지원을 하였습니다. 진행한 프로젝트가 많았기 때문에 서류전형에서는 꽤 많은 기업에 통과를 하였지만, 그 이후에 진행되는 코딩테스트에서 많은 탈락을 경험하였습니다. 그래서 알고리즘을 제대로 공부해야겠다는 생각을 하였고, 2020년 졸업 후에 **삼성 청년 SW 아카데미(SSAFY) 3기에 입학하여 체계적인 수업을 들으며 알고리즘 문제풀이 능력을** 키웠습니다.

결과적으로 2020년도 상반기에 SK C&C 인턴사원 모집전형에 합격을 하였고, 8주간의 인턴 수행 후 2020년 8월에 최종 전환면접을 통해 정직원으로 전환될 수 있었습니다. 대학생살을 돌이켜보면 무언가를 해야겠다고 느꼈을 때 바로 행동으로 옮기고, 행동으로 옮기는데 있어서 제한사항이 있을 때는 교수님과 학교의 도움을 활용한 것이 가장 중요했던 것 같습니다.



자기소개서 (SK C&C)

1. 높은 목표 설정

자발적으로 최고 수준의 목표를 세우고 끈질기게 성취한 경험에 대해 서술해 주십시오.(본인이 설정한 목표/목표의 수립 과정/처음에 생각했던 목표 달성 가능성/수행 과정에서 부딪힌 장애물 및 그 때의 감정(생각)/목표 달성을 위한 구체적 노력/실제 결과/경험의 진실성을 증명할 수 있는 근거가 잘 드러나도록 기술) (700자 10 단락 이내)

☞ 단 6개월 만에 완성해낸 졸업 논문

저는 최단기간에 최고의 졸업 논문을 작성해보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끈질기게 노력하여 성취한 경험이 있습니다. 4학년 졸업반 시절, 대부분 학생이 약 일 년에 걸쳐 졸업 논문을 작성하지만, 저는 한 학기 안에 논문을 완성한 뒤 남은 한 학기는 원하는 기업에서 소프트웨어 경험을 하겠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그리하여, 4학년이 되기 전에 미리 연구 주제를 선정하였으며, 3학년 겨울 방학부터 연구실에 출근하여 남들보다 빠르게 졸업 연구를 시작하였습니다.

하지만 실험의 모든 과정을 혼자 해야만 했기에, 연구 초기 데이터를 획득하는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때론, 한 시간 동안 힘들게 획득된 데이터마저도 노이즈가 심해 폐기해야 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수업이 끝난 이후 한 두 명씩 꾸준히 실험을 진행한 결과, 목표로 삼았던 30개의 데이터를 획득하여, 한 학기 만에 졸업 논문을 마무리하고, 남은 여름 방학부터는 원하는 기업에서 인턴 경험을 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미리 얻은 연구 결과를 학술회에서 발표하고, 우수논문으로 추천받아 추가 연구 결과를 논문지에 게재할 수도 있었습니다. 이렇듯 도전적인 목표를 수립하고 끈질기게 노력하는 저의 성향은 향후 SK C&C에 입사하여 다양한 도전적인 과제들을 보다 효율적으로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2. 기존의 틀을 깨는 과감한 실행

새로운 것을 접목하거나 남다른 아이디어를 통해 문제를 개선했던 경험에 대해 서술해 주십시오.(기존 방식과 본인이 시도한 방식의 차이 / 새로운 시도를 하게 된 계기 / 새로운 시도를 했을 때의 주변 반응 / 새로운 시도를 위해 감수해야 했던 점 / 구체적인 실행 과정 및 결과 / 경험의 진실성을 증명할

수 있는 근거가 잘 드러나도록 기술) (700 자 10 단락 이내)

저는 헬스케어 벤처기업에서 인턴으로 근무하며 남다른 아이디어로 서비스 고도화를 이루어낸 경험이 있습니다. 벨트형 웨어러블 디바이스를 통한 새로운 서비스를 설계하는 사업과제에 참여하여 '4방향 낙상 감지' 솔루션을 90% 정확도를 가지도록 설계하여 구현하였습니다. 단순 임계치 설정 방법은 일상 생활 시 발생하는 충격도 낙상으로 감지하는 경향이 많았으며, 머신러닝을 사용하는 방법은 저전력 MCU를 사용하는 기기 특성상 적절하지 않았습니다. 한정된 센서와 적은 연산량으로 효과적인 개선방안을 고민 하던 중에, 아날로그 3축 가속도 센서값으로 x, y축을 기준으로 한 오일러 각(roll, pitch)을 구할 수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즉, 낙상이 발생하게 되면 급격한 각도 변화가 생김에 착안하여 보행 신호에 각도 변화만큼의 가중치를 주어 낙상시의 신호만 강조시켰습니다. 23Hz 의 low-sampling 데이터로부터 단순 역치값을 사용하는 방식은 80%의 정확도를 보였지만, 이 방법을 적용하여 90% 정확도로 낙상 여부와 방향을 분류할 수 있었습니다.

이후, 검증된 알고리즘은 사업과제 최종 보고서에 작성되었으며 C/C++로 변환후 포팅되었습니다. 창의적인 사고로, 상용 수준의 소프트웨어를 개발 해본 저의 경험은 향후 SK C&C의 엔지니어로 근무하면서, 다양한 혁신적인 기술로 미래의 변화를 주도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3. 직무전문성

지원 직무와 관련된 전문 역량을 키우기 위해 노력한 경험에 대해 작성해 주십시오.

[관련 경험 1] (필수) (100 자 2 단락 이내)

[인턴십] 웰트 주식회사 / 2019. 06 ~ 2019. 09

[상세 내용 1] (필수) (300 자 7 단락 이내)

- 헬스케어 벤처기업에서 벨트형 웨어러블 디바이스를 활용한 낙상 감지 및 예방 시스템 개발에 참여하였습니다. 보행 신호에 1초 안에 발생한 각도 변화만큼의 가중치를 주어 90% 정확도로 낙상 여부와 낙상 방향을 분류할 수 있었습니다.
- firebase에 저장된 3분 단위의 허리둘레, 일일 걸음 수 등의 총 9000만건 이상의 시계열적 데이터들의 누적 저장 추이와 사용자의 retention rate를 파악하였습니다. 이 경험을 통해 DB 무결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개발 단계부터 세세한 고려와 설계가 필요하다는걸 알게 되었습니다.

[관련 경험 2] (필수) (100 자 2 단락 이내)

[인턴십] 웰트 주식회사 / 2019. 09 ~ 2019. 12

[상세 내용 2] (필수) (300 자 7 단락 이내)

- 근감소증 환자를 위한 디지털 치료제 개발 신사업에 참여하며 프로토타입 어플리케이션에 탑재될 실시간 보행 수 및 보행속도 추정 알고리즘을 Android Studio를 활용하여 개발하였습니다.

- Android 센서 자체적으로 보행수를 검출할 수 있지만, 특히 출원을 위해서는 자체 로직으로 개발된 알고리즘의 개발이 필요하였습니다.
- 스마트폰에 내재된 가속도 센서와 지자기 센서를 활용하여 소지 위치/방법에 상관없이 실시간 보행 신호, 보행수, 보행 속도를 계산하여 내부 DB에 저장할 수 있는 실험용 앱을 제작하였습니다.

[관련 경험 3] (선택) (100 자 2 단락 이내)

[교육] 삼성 청년 소프트웨어 아카데미(SSAFY) 3기 / 2020. 02 ~ 현재

[상세 내용 3] (선택) (300 자 7 단락 이내)

- 탄탄한 코드구현을 위해서는 알고리즘 역량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였고, 삼성 청년 SW 아카데미에 입과하여 전체 교육시간의 40%를 알고리즘 학습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 일 평균 5문제의 알고리즘 문제풀이와 알고리즘 스터디를 통해 지금도 알고리즘 역량을 향상시키고 있습니다.
- 또한, 매주 주어지는 프로젝트에서 HTML5, Javascript, Bootstrap, Django 등 새로 배운 기술을 이용하여 '영 화 커뮤니티 웹 서비스'를 만들었습니다.

[관련 경험 4] (선택) (100 자 2 단락 이내)

[학회, 국내 저널] 2018년 정보 및 제어 학술대회 구두 발표, 국내 저널 게재

<https://doi.org/10.5370/KIEE.2020.69.1.114>

[상세 내용 4] (선택) (300 자 7 단락 이내)

- '운동 후 회복시 심박변이도 분석에 요구되는 최소 신호구간 고찰' 제목의 논문을 작성하여 대한전기학회 학술대회에서 구두 발표를 진행하였습니다.
- 이 연구에서는 운동 후 회복시 얻어진 연속적인 맥박간격 데이터를 획득하여 초단기 HRV 분석을 실시하고, 5분(300초)으로 분석된 결과와 비교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모바일 기기에서 신뢰도 있는 HRV 분석을 위해서는 최소한 60초 이상의 신호 획득이 권장됨을 확인하였습니다.
- 해당 연구는 우수논문으로 추천되어 추가 연구 결과를 대한전기학회 논문지에 게재할 수 있었습니다.

[관련 경험 5] (선택) (100 자 2 단락 이내)

[해외 봉사] 교수연계 해외봉사활동 2회 참여(네팔-카트만두, 포카라) / 2018.01, 2019.01

[상세 내용 5] (선택) (300 자 7 단락 이내)

- 2018년과 2019년 겨울, 네팔에서 보건 위생 봉사, 환경 개선 등의 봉사활동을 통해 세계 최빈곤국인 네팔 아이들에게 보다 깨끗하고 안전한 환경을 제공하였습니다.
- 첫 번째 봉사활동에서는 총무 역할을, 두번째 봉사활동에서는 그 경험을 살려 학생 팀장 역할을 수행하며 위기 대처 능력과 협업 능력을 키웠습니다.
- 또한, 의공학을 전공한 학생 입장에서 저개발국가의 보건 의료 필요성을 체험함으로써 제 전공의 가치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4. 입사지원경험(SK C&C Software Engineering)

서류전형 > 필기전형 > 1차면접 > 인턴십(8주) > 전환면접 > 건강증진

가. 서류전형

자기소개서는 주어진 주제에 대한 본인의 경험이나 생각을 자유롭게 작성하는 것이지만, 입사 지원을 하면서 회사에 가장 처음으로 제출하는 서류이며 본인의 첫인상이므로 매우 신중히 작성해야 합니다.

우선 자기소개서 주제별로 주어진 글자 수가 있는데, 될 수 있는 대로 이 글자 수는 전부 채울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1,000자 이내로 작성하게 되어 있는 문항에서 쓸 말이 없다고 하여 절반도 안 채우는 일은 절대 없어야 합니다. 특히 SK C&C의 문항 중 관련 직무 경험을 작성하는 3번 문항은 최소 2개 ~ 최대 5개의 경험을 작성할 수 있지만, 무조건 5개의 경험을 꼭 채워서 제출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주제 혹은 중요한 내용은 앞부분에 나와야 합니다. 면접관들이 시간관계상 자기소개서를 꼼꼼히 읽어보지 못할 가능성이 크므로, 가장 중요한 내용 혹은 주제를 앞부분에 배치해 가장 첫 문장만 읽어도 글의 내용을 알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글의 서두 부분에 읽는 사람의 흥미를 유발할 만한 요소를 넣는 것도 좋은 방법이며, 항목마다 짧은 소제목을 다는 방법도 추천합니다. 자기소개서를 토대로 면접 질문들이 나올 가능성이 크므로, 자기소개서에 면접관들이 본인에게 흥미를 느낄만한 요소들을 삽입해 놓아야 합니다.

최대한 많은 첨삭을 거쳐야 합니다. 자신이 작성한 자기소개서를 수십 번 다시 읽어보며, 너무 수식어가 많거나 끊어 쓰기가 안되어 읽기 어려운 문장, 외래어 표현, 주술 관계가 안 맞는 문장, 반복되는 문장, 적절치 않은 단어 등을 계속 수정해야 합니다. 또한, 많은 사람과 자기소개서를 공유해보고 피드백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혼자 본인의 글만 계속 읽다 보면 잘못된 부분을 찾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저의 경우에는 저와 같이 취업을 준비하는 친구들 여럿에게 초안을 모두 보내서 이해가 어렵거나 어색한 문장을 말해달라고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각 항목에 적합한 내용을 적어야 합니다. 자기소개서를 작성하기 전 가장 먼저 해야 할 일 중 하나는 해당 기업의 인재상, 가치관을 찾아보는 것입니다. 흔히 제시되는 항목은 성장 과정, 성격 및 장단점, 지원 동기, 입사 후 포부 등인데 각 항목에 기업에서 원하는 인재상과 본인을 잘 맞춰 글에 잘 녹여 넣는 것이 중요합니다. 은연중에 본인은 회사에서 찾는 인재이며, 이 자리에 오기까지 이러한 노력과 과정이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되 지나친 자기 자랑과 부풀린 거짓말은 지양해야 합니다. 참고로 SK 인재상은 SUPEX(최고 추구), VWBE(자발적, 의욕적), 최고 수준의 목표를 추구하는 인재이며, 그렇기 때문에 자기소개서 1번 항목을 가장 정성들여 작성하였습니다. ①내가무엇을 ②왜 ③구체적으로 어떻게 했으며, ④정량적인 결과는 어떠했고 ⑤최종적으로 그것을 통해 어떤 것을 얻었으며, 본인에게 어떤 의미가 있었는지 자세히 서술하도록 합니다. 특히, 결과 부분은 퍼센트(%)와 같은 정량적인 수치로 표기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나. 필기전형(알고리즘 + 인성)

요새 SW 개발 직무는 거의 모든 기업에서 알고리즘 테스트를 진행합니다. SK C&C도 역시 알고리즘 테스트를 진행

하였고, **120분 동안 3문제의 알고리즘 문제와 1문제의 SQL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작년(2019년) 하반기에는 오프라인으로 시험장에 가서 코딩테스트를 진행하였지만, 올해는 코로나 19의 영향으로 온라인(프로그래머스) 환경에서 시험을 치렀습니다. 시험 중에는 컴퓨터 화면, 웹캠을 통한 정면 화면, 스마트폰을 통한 측면 화면이 동시에 촬영이 되어야 하는데, 특히 스마트폰 구도를 잡기가 꽤 힘들기 때문에 사전 테스트 기간에 충분한 연습을 해보는 것을 추천합니다. 알고리즘 문제는 대부분의 언어(C, C++, C#, JAVA, Python3, Javascript)를 사용할 수 있었고, SQL 문제는 My-SQL과 ORACLE 중 선택하여 볼 수 있었습니다.

알고리즘 문제는 적당한 수준의 알고리즘 지식, 정교한 설계능력과 구현 역량을 측정하는 것을 목표로 문제가 출제된 느낌이었습니다. DFS, BFS 등이나 슬라이딩 윈도우, 이분탐색 등 어떻게 보면 알고리즘 레벨에서도 초급이나 중급 수준에서 요구할 수 있는 수준의 알고리즘이 필요하였습니다. 저는 알고리즘 공부를 주로 백준과 프로그래머스에서 하였는데, 문제의 느낌은 프로그래머스와 더 비슷하였습니다. 또한, 시험 중에는 별도의 IDE와 인터넷의 사용이 금지되어 있어서 IDE 없이 프로그래머스 환경에서 디버깅 연습을 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채점은 정확성과 효율성 측면에서 모두 계산되고, 테스트 케이스의 개수와 채점 결과는 표시되지 않습니다.

1문제 출제되는 SQL 문제는 JOIN과 GROUP BY를 확실히 알고, 서브쿼리를 어느정도 다룰 수 있으면 풀 수 있습니다. 저도 SQL은 하나도 몰랐었는데 프로그래머스에 있는 'SQL 고득점 kit'만 3번 정도 반복해서 풀어서 맞출 수 있었습니다.

SK의 코딩테스트 난이도는 프로그래머스 2-3 레벨 정도로 삼성, 네이버, 카카오 등에 비해서는 어려운 수준은 아니지만, 시간 대비 문제 수는 많은 편이므로 적절한 시간분배가 필요합니다. 저는 한문제당 30분이 넘어가면 바로 다음문제로 넘어갔습니다. 커트라인은 총 4문제 중 3문제를 확실히 맞추면 안정권으로 합격했습니다.

다. 1차 면접(직무 면접)

SK C&C의 인턴전형은 직무면접 1번만 존재합니다. 그래서 1차 면접을 통과하시면 인턴십 기회가 주어지고, 인턴십 중 수행한 내용을 바탕으로 최종 전환면접을 볼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1차 면접은 인턴십을 수행할만한 역량이 있는지 검증하는 단계라고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1차 면접을 준비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소개서 내용을 숙지하는 것과 본인이 수행한 프로젝트를 완벽하게 이해하는 것입니다. 프로젝트에서 본인이 수행한 내용, 기여도, 갈등 내용, 문제 해결 과정 등 꼼꼼하게 준비하셔야 면접관들의 꼬리질문에 당황하지 않고 답변할 수 있습니다. 모든 면접의 내용은 본인이 작성한 자소서를 기반으로 나오기 때문에 처음 자기소개서를 작성할 때 부터 면접을 대비하면서 작성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면접은 온라인 화상(Zoom) 환경에서 2:2로 진행하였습니다. 면접관 2분 모두 실무진 팀장님 정도로 추정되고, 모두들 노트북을 보시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1분 자기소개와 마지막 할말은 필수로 질문하였습니다. 저에게는 모두 자기소개서에 작성된 내용을 기반으로 질문이 들어왔고, 자기소개서에 애매하게 적혀진 부분에 대해서 깊게 꼬리질문을 받았습니다. 저와 같이 면접을 봤던 지원자분은 자기소개서에 애자일과 CAN통신에 대한 내용을 적어서 면접관 분들이

관련된 꼬리질문을 하였는데, 제대로 답변을 하지 못하여 좋지 못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1차 면접의 경쟁률은 3:1 정도의 느낌이었고, 1차 면접을 합격하여 인턴십 기회를 얻은 인원은 총 70명이었습니다.

인턴십 전형에 합격되면 인턴십 1주간 오리엔테이션을 받게되고, 오리엔테이션 마지막 날 8주간 근무할 부서를 배치 받고, 그 다음주부터 바로 출근을 하게 됩니다. 배치되는 부서는 1차 면접의 면접관 분들이 지원자의 자기소개서와 면접 내용을 바탕으로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만약 본인이 원하는 부서가 있다면 1차 면접부터 본인의 경험을 바탕으로 어필을 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질문내용

- 간단하게 자기소개
- 졸업 연구를 혼자 진행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점과 어떻게 해결했는지
- 웨어러블 벨트에 탑재된 MCU는 무엇인지에 대해 질문
- SSIFY에서 진행한 프로젝트의 프론트엔드는 어떤 프레임워크를 사용했는지와 그 이유
- 국내 저널을 작성했다고 적혀있는데, 본인의 기여도는 몇 퍼센트인지
- 마지막으로 할말

라. 정규직 전환면접

인턴십은 지원한 근무 위치와 1차 면접에서 어필한 본인의 역량을 기준으로 부서가 배치되어 8주간 실무 경험과 PT 준비를 하며 팀장님과 팀원분들께 평가를 받는 시간입니다. 저는 대전에 위치한 SK 이노베이션 연구소에서 전기차 배터리 R&D를 위한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부서에 배치되었습니다.

워낙 생소한 부서에 배치되었기 때문에 처음 2주간은 배터리 시스템과 산업공학에 대한 도메인 지식을 쌓는데 집중하였습니다. 그 뒤 4주 정도는 본인의 멘토의 지도를 받으며 멘토님이 맡은 시스템의 개발 업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저는 C# 개발 경험이 한번도 없었는데 C# 개발 업무를 맡게 되어 처음엔 매우 고생했지만, 꾸준히 공부하며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드리려고 노력하였습니다. 마지막 2주간은 면접에서 발표할 PT 자료를 만들고 팀원분들 앞에서 발표하며 전환면접을 준비하였습니다.

PT 발표에서는 인턴십 중 본인이 맡은 프로젝트 내용, 배운점, 느낀점, 향후 하고싶은 업무 등을 말하였습니다. 10분간 3장의 PT 자료를 발표하였고, 15분 Q&A 시간을 가졌습니다. 1:3으로 면접을 보았고, 인사팀 2분과 제가 일했던 팀의 본부장님이 면접관으로 계셨습니다. 거의 압박 질문으로 본인의 약점이 보일 수 있는 내용들에 대해 질문하시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가장 인상깊었던 질문은 자기소개서에 작혀진 알고리즘 공부를 지금도 꾸준히 하고있는지에 대한 질문이었는데, 솔직하게 지금은 인턴십에 집중하느라 예전만큼은 하고있지 않다고 답하였습니다.

실질적으로는 **인턴십 때 근무한 태도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최종 면접을 보기 전에 팀원분들의 평가로 거의 결정이 되어있기 때문에 인턴십을 충실하게 잘 수행한다면 전환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환률은 매년 약간씩의 차

이는 있지만, 이번에는 총 70명 중 50명 정도가 전환되었습니다.

질문내용

- 멘토님이 지시한 내용 말고 본인 스스로 프로젝트를 수행한 내용이 있는지
- 요새도 꾸준히 알고리즘 공부를 하고 있는지
- 가장 기억에 남는 알고리즘 문제와 그 이유
- 왜 다른 기업이 아니고 SK C&C에 지원한 이유
- 비전공자인데, 전공자인 친구들에 비해 본인의 개발실력은 어느정도 수준인지
- 컴퓨터 공학적인 지식은 어떻게 공부하고 있는지
- 지원한 지역에 대한 질문(지방 근무도 가능한지)
- 마지막으로 하고싶는데 못한 말

마. TIP

• 나의 경험에 대해 소개할 때는 그 과정에서 얻은 것을 위주로 어필하자.

보통 취업 준비를 하면서, 학교를 다니면서 진행했던 팀 프로젝트나, 대회 또는 공모전 준비, 다양한 외부 활동 등에 대한 정리를 하게 됩니다. 정리한 것을 자기소개서에 적기도 하고 면접 때 어필하기도 하는데, 이때 경험에 대한 스토리는 너무 장황하게 설명하지 말고, 간단하게 설명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내가 이러한 경험을 했고, 그 과정에서 무엇을 얻었다는 것은 확실하게 어필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팀 프로젝트 진행 중 소통, 협업의 부재로 인해 최종 결과물이 좋지 않았고, 그 과정에서 우리는 팀 프로젝트에서는 소통, 협업이 정말 중요한 요소임을 깨달았다. 그 이후, 다른 팀 프로젝트에서는 팀원과의 원활한 소통, 협업을 위주로 진행했더니 좋은 결과물을 얻을 수 있었다.' 는 식으로 본인의 경험을 통해 얻은 것, 성장한 부분을 어필한다면, 면접관에게도 좋은 인상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모르는 것에 대해 질문 받았을 때는 꾸며내지 말자.

면접관으로부터 전공 지식에 대한 질문이든, 자기 소개서에 대한 질문이든, 면접 때는 다양한 질문을 받게 됩니다. 내가 잘 대답할 수 있는 질문이라면 상관없겠지만, 순간적으로 생각이 나지 않는 질문이거나, 답변하기 모호한 질문도 종종 들어옵니다. 이때,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지 못하면 면접에서 마이너스가 될 것이라는 압박감을 느낄 수도 있지만 그런 압박감 때문에 **역지로 답변을 만들어내는 등의 거짓말은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솔직하게 내가 아는 만큼 답변하고, 모르는 것은 모르겠다고 답변하는 것이 면접관들에게 오히려 나은 인상을 심어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모르는 질문이라고 해서 약간의 고민이나 생각도 하지 않고 곧바로 '모르겠습니다' 라고 답변하는 것은 역효과입니다. 조금 생각하고 고민하는 척을 하고, '질문해주신 부분에 대한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러이러합니다' 등의 고민한 흔적을 담은 답변을 해주면 좋다고 생각합니다.

• **너무 긴장하지 않도록 노력하되, 과한 어필을 하지 말자.**

어떻게 보면 취업 준비의 가장 마지막 단계인 면접인 만큼, 누구나 긴장할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긴장을 좀 풀어 주는 방법으로, **회사와 나 자신을 동등한 위치로 생각하고 면접에 임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저의 경우에는, 회사가 나에게 대해 파악하고 채용을 하기 위해 면접을 진행하는 것이지만, 나 역시도 회사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면접에 응한다는 마인드로 임했습니다. 면접관과 질문, 답변을 주고받으면서, 자연스럽게 대화하게 되어 긴장이 조금씩 풀리게 되었고, 더욱 차분하게 면접을 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너무 의식해서 과한 질문을 하거나, '난 이 회사 아니어도 문제 없어' 라는 뉘앙스가 느껴진다면 오히려 면접관으로부터 마이너스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자신의 습관을 파악하자.**

자신의 성향 및 성격은 자기소개서를 작성하는 과정을 통해 이미 잘 정리되어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자신의 성향을 보여주는 '습관'은 스스로 인지하고 있기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면접에 임하기 전에 주변 친구들 및 가족들로부터 자신의 습관에 대하여 조언을 얻는 것이 좋습니다. 면접은 짧은 시간동안 이야기를 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사소한 습관들도 다른 이미지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준비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능하다면 **면접 스티디도 추천**드립니다.

• **회사의 정보를 모으자.**

저는 면접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SW역량을 가지고 회사의 사업에 기여를 할 수 있는 사람임을 보여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가장 먼저 해야하는 것이 바로 그 회사의 사업에 대한 조사입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SW 회사들이라도 사업 그 자체가 SW인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SW를 이용해 다른 부가가치를 만들어 내는 사업을 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따라서 지원한 회사가 가장 중심으로 가지고 있는 제품, 서비스에 대하여 잘 이해하고 자신의 역량과 엮어 표현할 수 있도록 지원한 회사에 대해 자세히 조사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조사 방법으로는 **증권사의 애널리스트 리포트를 추천**합니다. 증권사 리포트는 현재 시장상황과 그 회사의 상황을 가장 잘 보여주는 자료 중 하나입니다. 또한 보통 면접관 분들은 평소에는 사업적인 관점에서 업무를 하시는 분들일 확률이 높기 때문에, 사업에 대해 분석되어 있는 자료를 통해 공부한다면 면접관들의 시각을 이해하는데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